



이 형 우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년 복(伏) 경기 전망

1. 머리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3일 판정)에서 발생한 후 전국적으로(5월 25일 현재) 확산되었다(국내 3차 발생). HPAI 발생 이후 정부는 위험지역(발생지역 기준 3km 이내)에 위치한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경계지역(10km 이내)에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5월 25일 현재까지 닭과 오리의 살처분 수(예방적 살처분 포함)는 814만수에 이르렀다.

과거와 달리 올해 발생한 HPAI는 봄철에 발생하였다는 점, 빠른 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상황은 HPAI가 5월 12일을 마지막으로 발생한 후 아직 추가 신고가 없어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복은 7월 19일부터 시작으로 말복인 8월 8일까지 과연 AI의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모여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HPAI 발생 이후 육계 가격과 수요 회복시기를 과거 국내 1, 2차 발생 때의 경험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다가올 복 경기 수요와 가격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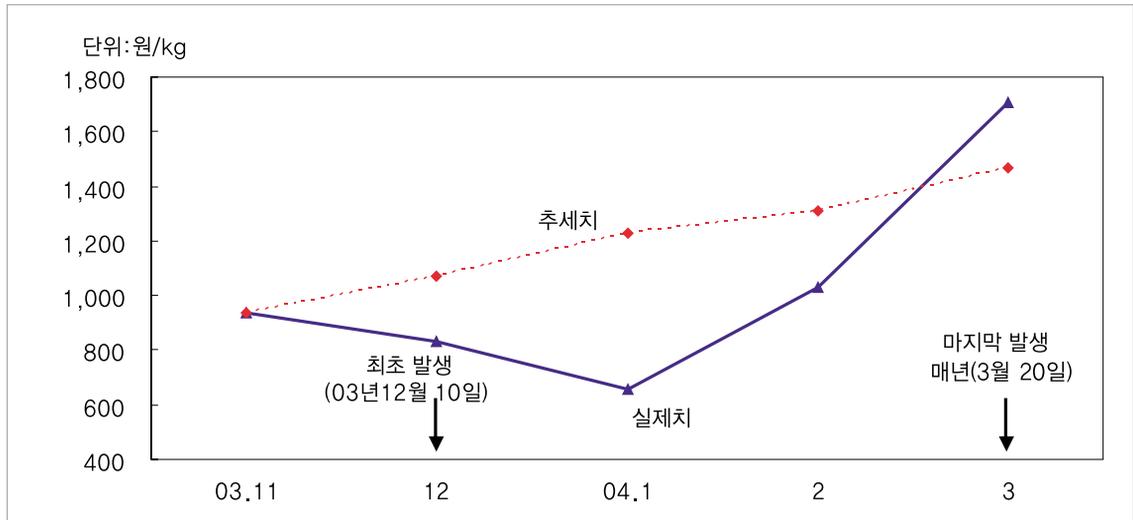
2. 과거 HPAI 발생시 가격 회복 시기

1) 국내 1차 발생(2003~2004년)

2003년 12월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이후, 닭고기 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육계 가격이 급락하였다. 2004년 1월 육계 가격은 추세치 대비 최고 46.3% 하락하였으며, 닭고기 소비는 약 25~30% 감소하였다(한국계육협회 회원사 판매수수 26.7% 감소).

2003~2004년에는 가금류 살처분 등으로 닭고기 생산이 감소하고 국내 양계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닭고기 먹는 날 지정, 20억

〈표 1〉 국내 HPAI 1차 발생시 육계 가격 변동(2003~2004년)



※ 추세치는 국내에서 HPAI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월별 육계 가격을 추정함.

배상 보험 가입 등)에 힘입어 HPAI 최초 발생 후 약 2개월이 지나면서 육계 가격은 회복세를 보였다.

2) 국내 2차 발생(2006~2007년)

2006~2007년 국내 2차 HPAI 발생 후 육계 가격은 2007년 6월 추세치에 비해 7~28% 정도 하락한 것으로, 2003~2004년(1차)보다 하락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안전성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발생 시점 이후 1개월 정도 지나 가격이 회복되었다.

3. 수요 회복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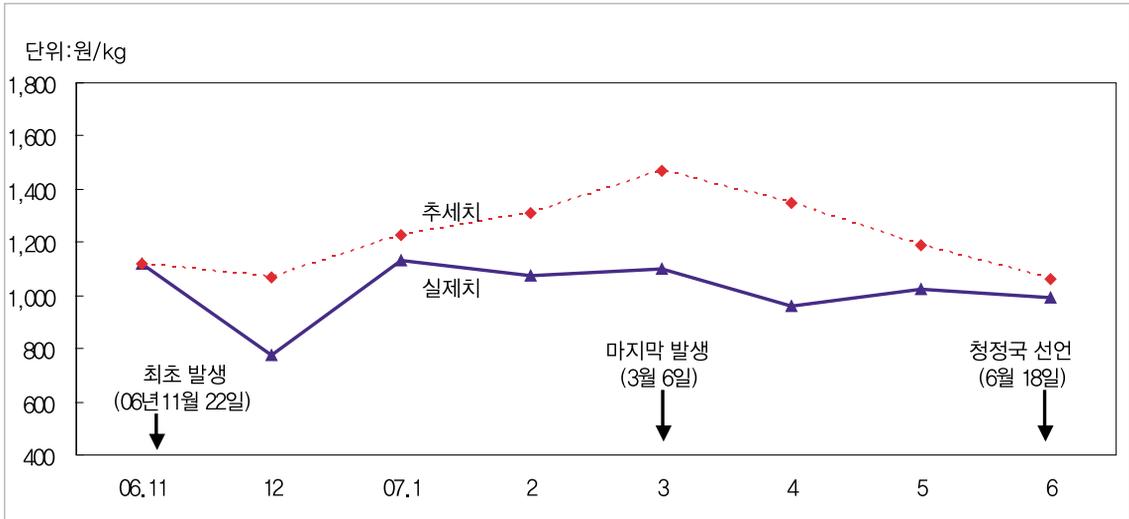
과거 HPAI 발생 이후 닭고기 수요 변화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HPAI가 발생했을 때가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소비자들의 소비심

리가 더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PAI 발생으로 야기된 닭고기 안전성에 대한 심리적 불안으로부터 회복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마지막 발생 시점 대비 최소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요 감소폭을 비교해 보면, 2003~2004년 국내 1차 발생시에는 수요 감소폭이 최대 24.6%였으며, 2006~2007년 국내 2차 발생시에는 수요 감소폭이 최대 15.2%로, 9.6% 낮아졌다. 두 기간의 중간인 2005년 해외에서 HPAI가 발생했을 때는 수요 감소폭이 최대 13.3%로 국내 발생시 보다 낮게 나타났다.

올해 HPAI 발생 초기에는 닭고기 소비감소가 20~30% 수준이었으나, HPAI가 서울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소비 감소폭이 더 커져 최대 70%까지 이르렀다. 농협(4대 매장) 닭고기 매

〈표 2〉 국내 HPAI 2차 발생시 육계 가격 변동(2006~2007년)



〈표 3〉 월별 도계(소비)지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도계지수	83.9	74.3	82.4	89.6	108.0	120.3	144.9	117.2	96.9	92.4	92.3	97.8
비고		질병·황사 발생					초·중복	말복				

※ 도계지수는 1996~2007년까지의 평균 도계수수를 구하고 그 평균을 100으로 함.

출액은 4월 1일 14,832천원에서 5월 23일 현재 6,309천원으로 58% 감소하였다.

월별 도계지수를 보면, 해마다 7월은 닭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초복과 중복이 있어 연중 소비가 가장 많은 달이다. 과거 경험상 마지막 발생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복 경기가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를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

4.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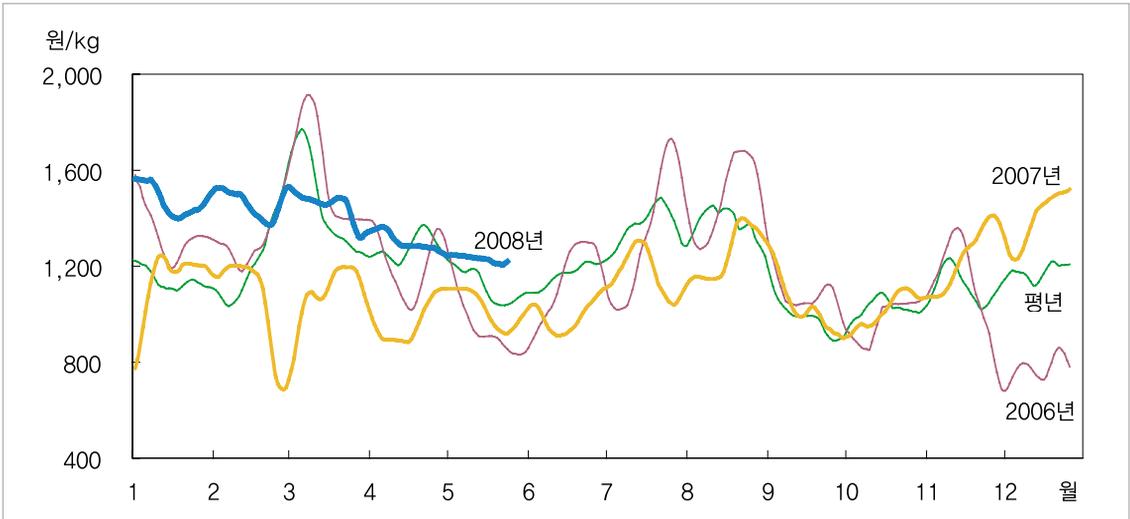
HPAI 발생으로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복 경기 육계 가격의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과거의 경험상, HPAI의 마지막 발생 시

점에서 닭고기 가격이 회복되는데 걸린 기간은 최소 1개월로 나타났다. 올해 마지막 발생시점이 5월 12일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HPAI 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질병이 추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6월 하순부터 가격은 회복세가 예상된다.

향후, HPAI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소비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복 경기 육계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6월 까지 HPAI가 진정되지 않고 재발·확산되는 경우에는 초복(7월 19일), 중복(7월 29일)의 수요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다.

7월과 8월 복 경기 육계가격은 날씨의 영향

〈표 4〉 육계 산지가격(농협발표가격)



※ 평년은 03~07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 자료 :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5일 이동평균가격).

을 크게 받는다. 최근에는 8월 육계 가격이 7월보다 더 높게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장마 이

후 8월 무더위가 지속되면 육계 생산성 저하로 8월 가격이 7월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미국곡물협회 간담회

사료용 옥수수 수급불안 계속

2008년~2009년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은 전년대비 13%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사료용 옥수수 생산량은 1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미국 의존도가 87.6%(올 4월까지 집계기준에 달하는 국내 사료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섬유질 원료를 활용한 에탄올생산 등의 여파로 사료용 옥수수의 생산 여건과 공급량은 충분할 전망이다.

미국곡물협회가 지난 5월 6일 롯데호텔 소공점에서 미국 옥수수 수급 전망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켄 하비 미국곡물협회 사장은 "올초 농민들의 작황 의향조사를 물은 결과 사료용 옥수수 생산량이 11.3% 줄고 재고율도 5.4%에 불과할 전망이다. 다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약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는 옥수수를 활용한 에탄올 생산량이 완만해질 것이다. 또 옥수수 가격의 상승으로 보리와 수수의 생산도 늘어나고 옥수수 대체원료인 주정박(DGS)의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향후 사료용 옥수수의 재배 여건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현재 미국내 에탄올 공장은 147곳이고 55개가 건축 중에 있는 등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섬유질 원료를 활용한 에탄올 생산산업이 발전할 전망이고 옥수수 자원을 식용이 아닌 에너지로 사용하는 데 따른 비난 여론도 생겨 2010년 이후에는 증가세가 완만해질 전망이다.

미국 옥수수 생산자협회는 현재 3억3000만 톤인 옥수수 생산량이 7~8년 후에는 4억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료용 옥수수는 물론 에탄올 생산을 위한 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공학작물(GM crops)이 곡물가격을 낮추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현 상황에 맞는 경영계획과 관련 기술개발이 절실하다.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읽어 생산량을 효율적으로 늘리고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증가개발 및 사양기술향상 등의 생명공학이 중요하다. 예전만큼 옥수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극심한 가격변동 폭에 대비한 경영전략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